국제정치 질서의 격변과 한국

새자연모임, 2023.06.14.

윤 영 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목 차

1.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

2.도전 받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3.우크라이나 전쟁

4.미중 대결의 심화

5.북한 위협

6.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

동북아 속의 한국

Russian Federation
Mongolia
P. R. China
DPRK
ROK
Japan
Magadan
Petropavlovsk-Kamchatskiy
Yakutsk
Omsk
Novosibirsk
Krasnoyarsk
Taishet
Bratsk
Irkutsk
Ulan-Ude
Chita
Komsomolsk-na-Amure
Blagoveshchensk
Sovetskaya Gavan
Khabarovsk
Yuzhno-Sakhalinsk
Hailar
Birobidzhan
Zabaykalsk
Kyakhta
Manzhouli
Harbin
Suifenhe
Ussuriysk
Hunchun
Nakhodka
Vladivostok
Rason
Changchun
Yanji
Sapporo
Akita
Sendai
Niigata
Kanazawa
Tokyo
Nagoya
Osaka
Fukuoka
Pusan
Daegu
Ulaanbaatar
Tamsagbulag
Erenhot
Zamin uud
Almaty
Urumqi
Hohhot
Shenyang
Dandong
Wonsan
Pyongyang
Seoul
Incheon
Beijing
Tianjin
Dalian
Qingdao
Lianyungang
Lanzhou
Xian
Zhengzhou
Nanjing
Shanghai
Wuhan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

1. 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

2.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어

3. 한반도를 놓고 주변 대국들 경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분단, 6·25전쟁, 미소냉전, 미중 경쟁)

청·일전쟁(1894-1895)과 조선: 2023년 지금은?

2023년 한국이 처한 도전: 위협받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 미중 대결 심화
3. 북한 위협

자유주의 국제질서: 의미

1. 2차대전이후 미국이 주도
2. 국제정치– 영토주권, 자결권, 다자주의, 규범기반 국제질서
3. 국제경제– 시장원리에 기반 자유무역, 자본, 노동의 이동
4. 국내정치– 자유, 인권, 민주주의
5. 최근 10여년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
6. 한국에게 왜 중요한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I): 러시아 요인

1. 푸틴의 야심—러시아 제국의 부활 (푸틴, "소련제국의 붕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 2005)

2. 조지아 (2008), 크리미아 (2014) 침공

3. 주 유엔 케냐 Martin Kimani대사 22.02.22 발언

("만일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 인종, 종교적 동질성으로 국가를 수립하려 했다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는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은 현재의 국경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평화라는 더 위대한 것을 원해서 러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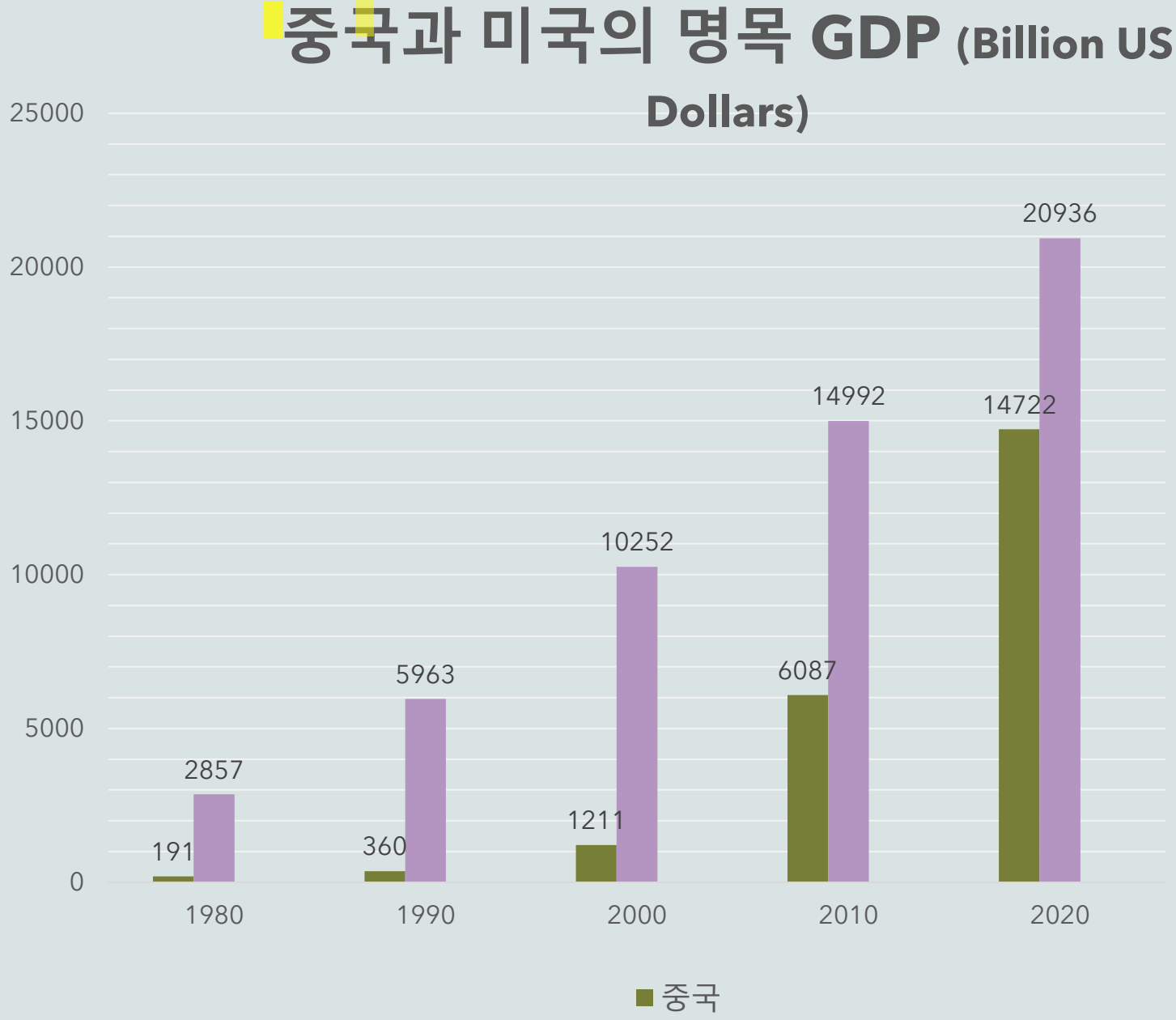
4. "나토 동진"보다 동구권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 (2003, 조지아 장미혁명; 2004,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 키르기즈스탄 튤립혁명)

우크라이나 침공: 한국인의 시각

1.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자결권을 침범
2. 나토의 동진이 원인? – “세력권”, “영향권 " 논리?
3.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경제, 민주주의 성장
4.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1910)
5. 북한의 남침 (1950)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II): 중국 요인

1. 미중 관계의 변화: 1950년→ 1972년→ 2008년 →2018년
2. 중국의 권력 상승과 미국에의 도전
3. 상승 대국 vs. 기존 대국: 전쟁이냐, 평화냐? (중앙 Sunday, 23.06.10. “평화확률 25% 시대”)



중국이 미국을 추격

1980년 중국/미국 6%

2000년 중국/미국 12%

2010년 중국/미국 41%

2020년 중국/미국 70%

Statistics Times,

Sources based on the World Bank and the IMF.

May 15, 2021

시진핑의 중국몽 외교 (1)

1. 2012.11. 18차 당대회—"중국몽(中國夢)"
2. 공산당 주도하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중국민족의 대부흥 달성
3.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분발유위(奮發有爲)로

시진핑의 중국몽 외교 (2)

1. 일대일로(一帶一路)
2. “태평양은 넓어서 미중을 다 품어...” 남중국해
3. 아시아 지역패권
4. 중국판 다자외교: 국제기구, SCO, BRICS
5. 중러 협력
6. 힘을 과시하는 외교 (경제적 강압, 전랑(戰狼)외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내부적 도전: 미국 국내 요인

1. 미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치적 효과

(1). 부의 불평등 배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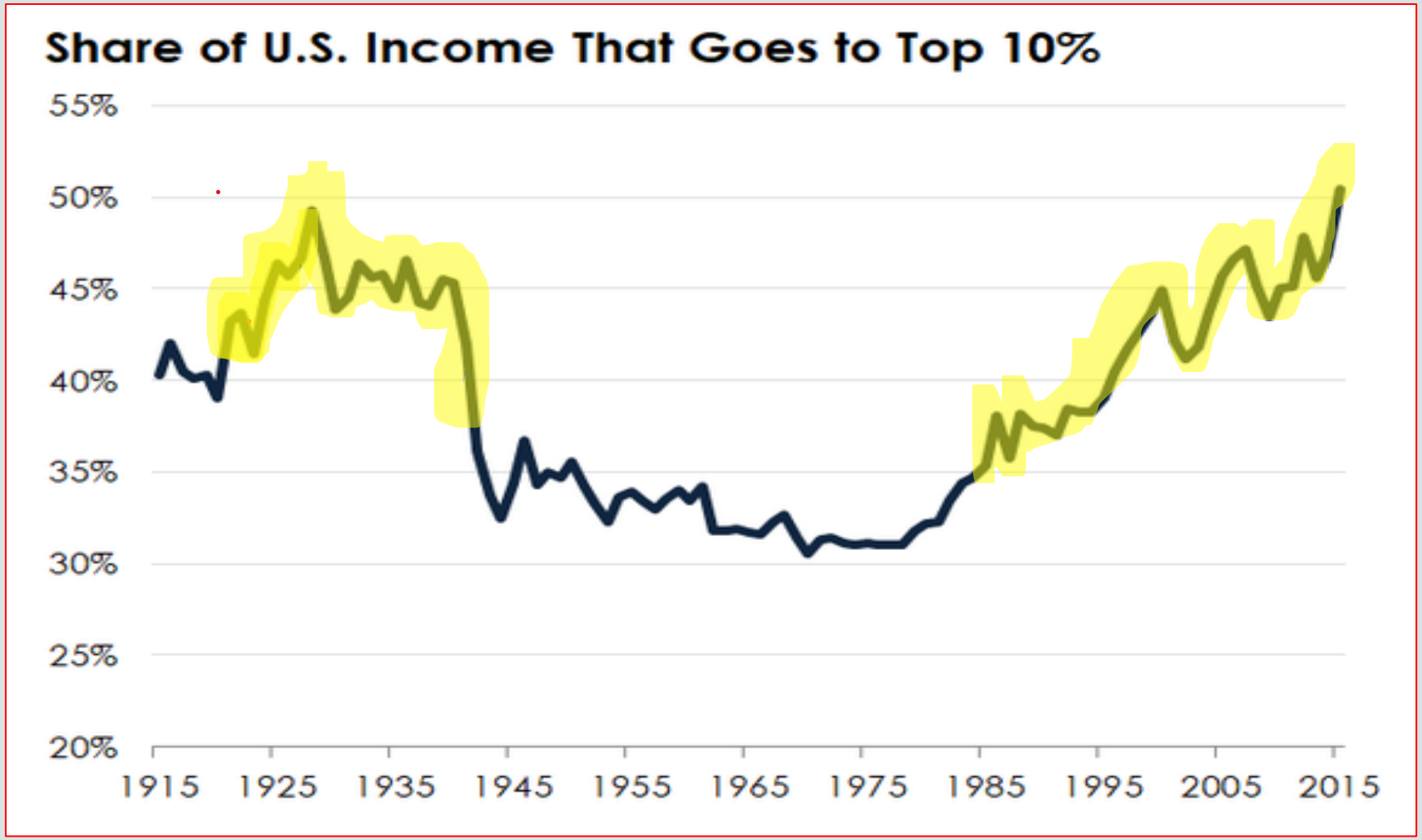
(2). 세계화의 파장– 러스트벨트(rust-belt)의 분노

(3). 뉴욕발 세계금융위기 (2008)

(4). 트럼프의 당선 (2016)

r

미국의 소득배분 추세 (1915-2015)



- Data sourc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Chart by Ray Dalio, "Our Biggest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ssue." (Oct. 2017)

도전 앞에 흔들리는 미국 외교(1): 오바마

1. 재균형(Rebalancing) 전략

2. 마지막 대중 포용 노력

3. 해외 개입을 꺼리는 소극적 외교: 이라크전의 후유증

(1). 시리아의 경우

(2). 남중국해의 경우

도전 앞에 흔들리는 미국 외교(2): 트럼프

1.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 계층의 분노를 이용해서 당선

→ 분열의 정치→ 반세계화, 반이민

2. 미국의 국제적 리더 역할을 포기

3. 미국 우선주의– 동맹 경시. 자국 경제이익만 챙김

4. 중국정책의 대전환: 포용에서 대결로 (2018)

자유주의 질서의 회복 노력(3): 바이든

1. 미국의 리더십 회복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 중산층)

2. “투자, 연합, 경쟁”

(투자) 코로나19부양법안, 인프라법안, 인플레감축법안 등

(연합) 동맹과 우호국들과 국제연대

(경쟁) 트럼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중국 압박

3.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주도

미중 대결 시대로 진입

1. 트럼프가 중국 포용을 버리고 강경 대결로

2. 중국과 무역전쟁 시작 (2018.7.6, 340억불 상당 수입품에 25%관세—자동차, 하드디스크, 항공부품 등)

3.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 대결정책 계승하고 체계화

4. 군사, 경제, 기술, 외교, 이념 대결 심화

미중 경쟁: 외교

1. 중국: 아시아 패권 추구→ 서태평양 진출

(남, 동중국해). 유라시아 통합 (일대일로)

2. 미국: 트럼프,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

3. 미국: 쿼드 (미, 일, 호, 인), AUKUS (미, 호, 영), 한미일 협력 강화, 인태와 나토 연계 강화

4. 중국: 러시아, 국제기구, BRICS, SCO

미중 경쟁: 군사 (1)

1.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중 국방비 지출 비교
(1996년 19:1 → 2020년 3:1)
2.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
3. 미국→ '합동전투수행개념', '통합억제'
4. AUKUS: 미·영·호주 군사협력 (핵추진잠수함)
5. 미중 군사당국간 핫라인 불통

미중경쟁: 군사(2)--대만

1. 시진핑—대만통일은 중국몽 달성의 필수요건

2. 최근 수년간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급증

3. 대만인들의 정체성 인식 변화

4. 미국 정치권의 불안, 강한 입장표명– 바이든, 펠로시

5. 미국이 대만 보호 못하면 국제 리더십 추락, 서태평양은 중국 바다로, 한국 일본 고립

6. 미 국방부 시뮬레이션: “대만에서 미·중 충돌시 중국 승리”

시진핑의 딜레마: 중국몽과 현실의 격차

1. 인구 감소
2. 경제 저성장, 부채 누적
3. 국제적 포위망
4. 쇠퇴하는 중국이 더 위험?
5.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야하나? (중앙Sunday, 23/02/04, “너무 빨리 도광양회 버린 중국의 대가”)

미중 경쟁과 한국

1. 중국: 한국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한반도 전체를 자국 영향권 아래 두려 함 (아시아 지역 패권 추구)

2. 미국: 대중국 연합전선으로 한국을 더욱 끌어당김

3. 한국은 북한 안보 위협 때문에 한미동맹이 필수. 동시에 중국과는 깊은 경제관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III): 북한 위협

1.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 킬 체인 무력화 우려

2. KN-23 → 고체연료추진 단거리미사일, 저고도 활공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2019년 이래 15차례 발사)빠르게 목표 타격, 요격회피 기동→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 약화 우려 (450-600km 사정거리)

3. KN-23→ 한미연합지휘부, 미사일방어기지, 항공기 등을 공격, 초기에 한미의 전투 능력과 의지를 꺾겠다는 것

4. SLBM 능력 제고 (북극성3호 KN-26, 2021.10.19일 발사) → 미사일방어 능력 (사드) 약화 및 2차 공격능력 확보

한국의 전략적 선택: 미 or 중?

1. 미중 대결→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여지 점차 소멸

2. 안보, 경제 모두에서 미·중 중 선택 압박 강화

3. 그 경우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그러면서 한중관계를 순탄하게 관리해야 (북한 위협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중국 문제는 얼마나 더 잘 사느냐의 문제)

4. 북한의 위협 대비, 경제 및 기술협력, 글로벌 외교→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 (중앙, 23.1.17자 컬럼)

생각해 볼 문제들

1. “친일”, “반일”, “친미”, “반미”— 한국에서만 있는 어법--> 감성 보다 국가이익이 앞서야

2. 진보는 반미, 보수는 친미?– 국내정치 진영논리가 아니라 한국에 무엇이 이득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3. 한일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4. 철저한 주인의식, 초당파적 접근, 전략적 사고 (서독 외교의 교훈)

감사합니다!

- 윤영관 ykyoon@snu.ac.kr
- (홈페이지) http://yoon21.net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ngkwan.yoon.96

- (저서) 외교의 시대: 한반도의 길을 묻다 (미지북스: 2015)

등 다수